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독창적 역사기술방법

-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작자등장기법 -

이 복 임*

(e-mail : danan01@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시바사관의 선행연구
 3. 작자등장기법
 - 3-1. ‘여담’으로 등장
 - 3-2. ‘필자’로 등장
 - 3-3. 기타 등장기법
 4. 맺음말
-
-

1. 머리말

일본의 국민작가이자 역사소설가인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1923~1996, 이하 ‘시바’로 칭함)는 2차대전 시 종군으로서의 전쟁체험과 신문기자생활을 통해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 후 1956년 동인잡지 『근대설화(近代説話)』의 결성으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초기작품은 주로 오락성이 강한 닌자(忍者)소설, 검호(劍豪)소설 등 시대소설이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료(史料)를 중시하는 역사소설가로 변모하여 일본의 메이지기(明治期, 1868~1912)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방대한 작품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시바는 일본의 격동기를 주요시대로 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실제인물을

* 한남대학교 한일어문학비교학과 박사과정, 근현대일본문학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긴박한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소설을 쓰는 목적이라고 한 시바는¹⁾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역사소설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작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완성된 시바의 작품에는 일관된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다. 시바사관이라고 하는 역사관이 전쟁체험과 기자생활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논고는 이미 발표된바 있으나²⁾ 본고에서는 시바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서술하는 독창적 기술방법으로 인하여 고유하고 독자적인 역사관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직접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1인칭시점의 소설양식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시바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작자가 얼굴을 내미는 독특한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여담’이라는 말로 등장하면서 작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필자’라든가 그 외의 방법 등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작품에 스며들어 하나의 역사관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은 산케이(産経)신문에 1968년부터 1972년에 걸쳐 총 1296회 연재된 장편역사소설로 청일·러일전쟁(1894·1904)이 주요 테마로 되어있다. 메이지초기 격변기 속의 인물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이 작품은 시바의 중기 역사소설로 총체적인 시바사관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작자등장기법이 한층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을 올바르게 보는 가장 좋은 역사서로서 평가받고 있으므로³⁾ 시바의 독창적 역사기술방법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이미 연구된 시바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본 작품에 들어있는 작자등장기법을 통해 시바의 독창적 역사기술방법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런 기법이 시바의 역사관으로 형성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망해 보도록 한다.

1) 「歴史が緊張して、緊張のあげくはけそになっている時期が、私の小説には必要なのである。この場合、歴史の緊張とは、横あいから走ってきている「自動車」とみていい。そのばく進のなかに、私の見ている人間と、その人間の人生を置いて交差させてみる。そこになにかおこりうるか、おこった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楽しみが、私のいわば作業である。」(司馬遼太郎, 『歴史と小説』, 集英社文庫, 1979年, p.278)

2) 金景鎬,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역사관(司馬史觀)의 형성배경과 의미 考察」, 日語日文学研究 第41輯, 2002년

3) 일본에서 월간지 「文芸春秋」가 2003년 4월호에 60명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일본을 올바르게 보는 가장 좋은 역사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坂の上の雲』가 1위로 랭크되었다고 한다. (「文芸春秋」, 2003年 7月号, p.180)

2. 시바사관의 선행연구

역사관이란 역사적 고찰을 할 때의 일반적 통일이념을 말한다. 단순히 사관(史觀)이라고도 한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자신 고유의 입장이나 과거의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또는 그것을 해석할 때의 해석원리나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역사관이다. 역사관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역사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발전하게 된다.

역사소설가인 시바도 전술의 독자적인 역사기술방법으로 사물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사고성을 가지고 일본인의 시민정신, 근대합리성의 뿌리가 농후한 소설을 주로 썼다. 이 합리적인 사고성이 시바의 역사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시바의 역사관 즉, 시바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시바자신이 언급한 적은 없지만 『언덕위의 구름』이 나올 무렵인 1975년에 평론가 다니자와 에이이치(谷沢永一)에 의해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단지 시바라는 사람의 인간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⁴⁾ 구체적인 언급은 1990년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가 발행한 『「現代日本」朝日人物事典』에 시바를 설명하는 말로써 사용되고부터이다.⁵⁾ 이후 시바작품의 연구자 중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⁶⁾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그는 시바의 ‘문학적 편력’을 크게 4기로 분류하여,

제1기 50년대의 ‘전기(伝奇)소설’(『梟の城』 등)

제2기 60년대의 ‘역사를 무대로 한 영웅소설’(『竜馬がゆく』 등)

제3기 60년대말부터 70년대의 ‘역사소설’(『坂の上の雲』 등)

제4기 80년대부터 ‘문명비평’(『この国のかたち』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제3기에 해당하는 본 작품으로 인하여 초기작품과는 달리 점차적으로 사실적이며 세밀하고 충실하게 그리려고 하는 역사소설가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였다. 겐이치는 시바의 창작활동을 ‘일본대중들의 심성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작가활동’이라고 평하며 시바작품은 주로 역사적인 소재를 취급하여 서술했기 때문에 ‘시바사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⁷⁾

4) 鷲田小弥太, 「サピオ(Sapio)」-「司馬史観が独り歩きを始めている」, 小学館, 2004年 10月, p.21

5) 「歴史的人物をその時代背景の中で、独自の歴史観においてとらえる歴史小説を発表、以後“司馬史観”による幕末維新时期、戦国期、明治期を舞台とする作品を多数生み出した。」

(野沢 敬, 『「現代日本」朝日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0年12月10日発行, p.796)

6)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1946~)는 평론가이자 작가, 역사가, 사상사가(思想史家)로 그의 저서 『司馬遼太郎』(小沢書店, 1996년, p.27)에서 시바의 「文学的 遍歴」을 4기로 구분하였다.

7)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는 그의 저서 『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龍馬がゆく』と『坂の上の雲』を読む』(朝日新聞社, 2003年, p.8)에서 「日本の大衆のエートス心性のおおよその移行と見合った作家活動に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변화는 제2기 작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의 작품들을 보면 주로 메이지 전후시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이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 주인공들이 대부분 일본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는 영웅들이 아니라 그 주변인물로 설정되어있고 이 시기부터 시바의 왕성한 작품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때의 시바작품으로 인해 학교 교과서에는 한, 두 줄로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인물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에 대해 아오키 아키라(青木彰)는 영웅사관이나 애국사관이 아닌 ‘변방사관’이라고 하고 본고의 작품뿐만 아니라 시바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류가 아닌 이류의 인물들로 변방에서 보는 눈 즉, 조연의 눈으로 역사를 그리려 했다고 하였다.⁸⁾ 제2기의 작품인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1962)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나 『타올라라 검(燃えよ剣)』(1962)의 히지카타 토시조(土方歳三), 제3기의 작품 『유채꽃바다(菜の花の沖)』(1979)의 다카타야 카헤에(高田屋嘉兵衛) 등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⁹⁾ 시바는 작품에서 이런 인물들이 그 시대를 지탱해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고의 작품에서도 러일전쟁이라는 사건을 다루면서 전쟁영웅인 노기나 도고¹⁰⁾가 아닌 이들의 조연격인 아키야마(秋山)형제¹¹⁾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바는 그의 작품 속에서 실제인물을 다루며 시종일관 일본과 일본인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역사관을 ‘애국사관’이라

なっている。」라고 하며 겐이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8) 青木彰,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朝日新聞社, 2005年, p.124

9) 『료마가 간다』의 ‘사카모토 료마’는 이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역사에서 그다지 큰 존재는 아니었다. 메이지유신의 3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기도 타카요시(木戸孝允)였다. 그러나 시바는 이 작품으로 메이지의 혁명정신을 상징하는, 아니 메이지국가뿐만 아니라 메이지라는 시대정신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국가이상을 결정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역사의 평가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타올라라 검』에서는 ‘히지카타 토시조’를 무사도에 순직한 아름다운 남자로서 그렸다. 히지카타는 무사제도가 해체되어가는 막말의 시대에 일평단심 ‘무사’가 되려고 했고 결국에는 무사로 죽어갔다. 시바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며 진정한 사무라이로서 이 자의 순수한 정신을 한층 상승시켰다. 또한 『유채꽃바다』의 ‘다카타야 카헤에’도 에도시대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외교를 하여 항로를 연 인물이지만 이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교과서에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만 명기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별로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소설로서 급격히 일본국민들에게 공유되기도 하였다. (松本健一, 『司馬遼太郎を読む』, (株)めるくまーる, 2005年, pp.12~13, pp.50~52)

10)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1849~1912)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1848~1934)를 말하며 이들은 러일전쟁 당시 큰 공을 세워 역사적 영웅으로 칭송되는 인물들이다.

11)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1868~1918)는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친구이고 일본해전을 승리로 이끈 명참모이었지만 전후는 승리가 되려고 했다.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1859~1930)는 사네유키의 형으로 근대화한 기병대를 이끌고 청일·러일전쟁에서 활약했다. 전후에는 작위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중학교 교장이 되어 말년을 보냈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시바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수필, 대담, 평론집에서도 메이지시대는 리얼리즘의 시대이고 쇼와시대(1945년까지)는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하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¹²⁾ 『언덕위의 구름』에도 러일전쟁 당시 주인공을 비롯한 숨은 공로자들과 군부 지도자 중 몇몇 야욕에 들뜬 인물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며 상호 대치시키고 있다. 이런 시바의 역사관에 대해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2항 대립사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용범씨는 『료마와 간다』의 사카모토 료마처럼 돈과 권력이 없는 탈번(脱藩) 낭인(浪人)이며 자유인을 천황중심의 국민국가건설에 뚜렷한 청사진을 가진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본고의 작품에서와 같이 러시아의 코사크기병과 발틱함대를 격파하는데 공을 세운 한 형제를 영웅화시킨다고 해서 ‘영웅사관’이라고도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다카하시 세이이치로(高橋誠一郎)는 시바는 자신의 전쟁체험을 발판으로 전쟁을 혐오하게 되었고 전쟁의 야만성과 근대병기의 파괴력을 예로 들며 전쟁을 ‘비현실’, 평화를 ‘현실’로 보게 되었다고 하며 ‘평화관’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여러 학설이 나오고 있다.¹³⁾

이렇듯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작자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기술하는 독창적 역사기술방법에 의해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2) 「明治は、リアリズムの時代でした。(中略) 昭和には一昭和二十年までですが一リアリズムがなかったのです。左右のイデオロギーが充満して国家や社会をふりまわしていた時代でした。」

(司馬遼太郎, 『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1994年, pp.7~8)

13) ① 시바사관을 기적로망, 영웅소설, 역사소설, 문명비평의 4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松本健一, 『司馬遼太郎歴史は文学の華なり、と』, 小沢書店, 1996年)

② 시바사관은 건강한 내셔널리즘(국가주의), 리얼리즘(사실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 관념으로부터의 자유,관료주의의 비판 등이다. (藤岡信勝, 『汚辱の近現代史』, 徳間書店, 1996年)

③ 시바사관은 밝은 명치와 어두운 쇼와를 대치시킨 단순한 2항 대립사관이다.

(中村政則, 『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 - 司馬史観を問う』, 岩波書店, 1997年)

④ 시바사관은 돈과 권력이 없는 낭인(浪人)과 같은 자를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영웅사관이다.

(김용범, 『일본주의자의 꿈』, 푸른역사, 1999년)

⑤ 시바사관은 인간의 본질과 일본인에 대한 테마로 접근해 들어간다.

(半藤一利, 『清張さんと司馬さん』, 日本放送出版協会, 2001年)

⑥ 시바사관은 영웅사관이나 애국사관이 아닌 변방사관(辺境史観)이다.

(青木彰,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朝日新聞社, 2005年)

⑦ 시바사관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평화관’이라는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高橋誠一郎, 『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2005年)

3. 작자등장기법

3-1. ‘여담’으로 등장

시바는 역사소설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다른 소설가와는 다른 독특한 기술방법이 있다. 작품 속에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여담이지만(余談ながら)’이라는 문체와 ‘필자’라는 문체로 다소 에세이적인 경향이 짙게 풍기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체는 초기의 역사소설인 『료마가 간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의 작품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기법으로¹⁴⁾ 작품 속의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삽입시켜놓고 있다. 이것에 대해 한도가즈토시(半藤一利)는 독자에게 향한 서비스정신이라고 일축했지만¹⁵⁾, 이런 종류의 문체는 본 작품 1권에서부터 등장하면서 작자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작품전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여담이지만, 나는 러일전쟁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어느 시점에서 쓰려고 한다. 작은, 이라고 말한다면 메이지초기의 일본만큼 작은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밖에 없었고 인재라고 하면 300년 독서계급이었던 옛 사족밖에 없었다. 이 작은, 세계의 한조각 시골과 같은 나라가 처음으로 유럽문명국과 피의 대결을 했던 것이 러일전쟁이다. 그 대결에 겨우 승리했다. (중략)

그 기적의 연출자들은 헤아리기에 따라서는 수백만도 되고 더 압축한다면 수만 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인 이상 그 대표자를 골라야 한다.

그 대표자를 현관(顯官)에서 고르지 않았다. 한 형제를 골랐다.

(一, 真之, p.68)¹⁶⁾

시바는 작품 초반부에서 주인공의 성장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었던 인물이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이다. 위의 인용문은 두 번째 단락의 도입부분으로 그의 동생 사네유키(真之)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형제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으로 러일전쟁이야기를 쓰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소설에는 청일전쟁이야기도 병행하고 있지만 비중은 러일전쟁이야기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이 시기 세계 문명국

14) 「余談ながら、後年、竜馬が長崎で活躍していたころ、フランス製の香水や白粉を買っては、この春猪にせせせと送ってやった。」(司馬遼太郎, 『竜馬がゆく(風雲篇)』, 文芸春秋, 1964年, p.8)

「余談だが、現在も、山崎八幡宮(離宮八幡宮)は、東海道線京都・大阪間の山崎線の西裏にある。」

(司馬遼太郎, 『国盗り物語』, (株)新潮社, 1968年. p.20)

15) 半藤一利 外, 「司馬遼太郎が坂の上の雲で書きたかったこと」, PRESIDENT, 1996. 12, p.69

16) 본 논문은 <司馬遼太郎, 『坂の上の雲 [-]~[六]』, (株)文芸春秋, 2005年, 新装版.> 을 텍스트로 하며, 이하, 괄호 안에 (단행본 권수, 소제목, 페이지)순으로 표시.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속에서 이제 막 근대화가 된 신생국가 일본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작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문구에서 시바의 의도가 엿보인다. 넓게 보면 세계 속에서 작은 나라이고, 좁게 보면 일본에서도 변방지역인 마쓰야마번(松山藩)을 나타낸다. 또는 메이지유신으로 정권을 잡은 번벌지역과 비번벌지역을 상대적으로 비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현관(顯官)이라고 한 시대영웅이 아닌 이 비번벌지역인 마쓰야마번에서 태어난 한 형제를 골라 이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작품에서 요시후루는 전쟁당시 육군에서 기병대를 창설하여 ‘기병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대단한 활약을 하였고, 동생인 사네유키는 해군에서 전략가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를 도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시바는 자신이 등장하여 이들의 능력을 후일담이나 주변의 평판을 인용하면서 한층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② 여담이지만, 그(요시후루)가 러일전쟁 시 러시아 코사크기병의 대집단을 무너뜨린 것으로 세계의 병학계 연구대상으로 되어 많은 외국무관이 일본에 견학을 왔었다. (一, 真之, p.115)

③ 요시후루는 전승자였다. 그렇지만 추격은 하지 않고 거꾸로 퇴각했다. 이런 면에서 호흡과 전투지도의 유연성은 거의 명인(名人)이라고 해도 좋았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 남자는 평생 군정 면이나 군령 면에서 육군관료가 되는 일 없이 대부분 부대근무로 시종일관하여 육군대장으로까지 올라갔다는 이례적인 존재였지만 그것은 소위 ‘명인의 일’로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五, 会戰, p.334)

위의 문장은 주인공의 한 사람인 요시후루에 대한 이야기로 그는 메이지초기 몰락사족의 자제로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당시 어느 정도 빈곤하였는지는 그의 행색이나 생활모습 등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요시후루는 혼자의 힘으로 육군대학까지 진학하고 졸업 후 군인이 되어 일본군대에 새롭게 신설된 기병을 육성하였다. 메이지초기의 기병이란 유럽과 비교하여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②의 인용문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전쟁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러시아의 코사크기병을 격파한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요시후루의 모습이 서양인과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외국무관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견학을 왔었고 그가 일본인이었기에 세계 병학계 연구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바는 여담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③의 인용문은 일본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의 봉천(奉天, 심양(瀋陽)의 옛 이름으로 만주사변 발화지)북부의 철도를 파괴하려고 요시후루

의 기병대가 동원되었지만 그는 병력과 배치가 누설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자 추격하지 않고 퇴각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런 지략으로 관료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머물며 육군대장으로까지 올라간 요시후루를 시바는 ‘명인(名人)’이라고 까지 추켜올리며 전투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 또한 후일담을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한사람의 주인공인 요시후루의 동생 사네유키도 형의 도움으로 해군병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기질을 잘 발휘하여 결국에는 수석졸업의 명예를 안고 수재로 발탁되어 국가첩보원자격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때 미 해군사상 전설가로 유명한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1914)대령을 만나 일본해군의 전략가로 재탄생되었다고 시바는 작품에 쓰고 있다. 이런 사네유키의 능력도 작자의 얼굴을 내밀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④ 또한 여담이지만, 사네유키는 모두가 옆에서 잡담하고 있어도 별로 방해 받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중략) 말도 안 되는 허풍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의 이론적인 것을 통하여 대작전을 책상 위에서 펼쳤던 적도 있었다. (三, 黃塵, p.217)

⑤ 여담이지만, 메이지기에 들어서 일본어 문장은 일본 국가와 사회가 급변했을 뿐만 아니라 외래사상의 도입과 함께 매우 혼란했었다. 그 혼란이 메이지30년대에 들어서 몇 개의 형태로 정비되어 가는데 규범이 되는 천재적인 문장을 필요로 했다. 소세키도 시키도 그 규범으로 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표현력이 있는 문장어를 창조하기 위해 매우 독창적인 작업을 했다. 사네유키의 문장도 이 시기에서 이런 규범의 역할을 했던 것이리라. (중략)

그런 의미에서 그의 문장이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은 ‘연합함대 해산사(連合艦隊解散ノ辭)’에서이다. (중략) “옛 사람이 말했다. 이긴 다음에 투구 끈을 단단히 매라 하고.” 이 문장은 여러 형식으로 각국어로 번역되었지만 특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것에 감동하여 전문을 번역시켜 자국의 육해군에 배포했다. (六, 雨の坂, p.442~443)

사네유키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한다.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갖고 탁월한 전략가로 재탄생되어 상대방의 무심코 흘린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론적으로 이용했다는 후문을 위와 같이 ‘여담’이라는 말로 인용하고 있다. ④의 인용문 바로 앞 문장에서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해군에게는 두려운 존재인 러시아의 발틱함대(러시아의 주력함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격전지로 이 함대가 러시아해군과 합류하려고 항해를 나섰을 때, 사네유키가 그 진로를 유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후일담으로 그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다른 군부관료의 생각과는 달리 사네유키의 추측으로

이 함대의 진로방향을 알아내어 결국에는 크게 대파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사네유키의 문장력 또한 당대 뛰어난 문학 작가 못지않았다는 것을 ⑤의 인용문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메이지기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문화에 문학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데 시바는 여기에서 근대작가로 유명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일본전통고전문학인 하이쿠를 혁신시킨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¹⁷⁾의 천재적인 문장력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사네유키도 이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역시 ‘여담’이라는 문체로 전쟁승리 후 일본함대 해산식에서 사네유키가 한 실제 연설문을 통해 문장가로서의 자질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는 독자를 자신의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작자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근대초기 일본 국가가 유럽의 대강국인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형제와 같은 일본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담’의 문체는 주인공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한 시대의 조연역할을 했던 인물을 중심인물로 부각시키는 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바는 이러한 능력을 역대로부터 전승된 일본인의 능력으로 보고 이것 또한 자신의 등장으로 다음 문장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⑥ 또한 여담이지만, 메켈은 일본육군에 대해서 이 시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장교도 연구심이 왕성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장교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본장교는 자신의 군사적 지식의 발달에 대해서는 경탄할만한 노력가이다. 게다가 그들 일본군의 특성은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전승의 첫 번째 요소일 것이다.”

(三, 黃塵, p.154)

위 인용문은 일본육군에게 독일식 전술사상을 주입시켰던 독일군인 메켈(1842~1906)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격전에 앞서서 메켈의 문하생이었던 군부관료가 일본군에 합류할 당시 메켈이 자신에게 배웠던 이들을 칭찬하며 했던 말이다. 특히 무한한 노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한다는 일본인의 자세를 내세우며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시바는 일본인의 정신으로 보

17)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1867~1902) : 메이지시대의 하이진(俳人)·가인(歌人). 에히메현(愛媛県)에서 출생. 동경제국대학(현, 동경대학)을 중퇴하고 일본신문사에 입사. 청일전쟁 시 종군기자가 되었지만 귀국 후 폐결핵이 악화되어 1902년에 사망했다. 단가와 하이쿠의 혁신을 일으켜 근대 하이쿠나 단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이쿠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와 단가잡지 『아라라기(アララギ)』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고 있는 것이다. 시바의 메이지기까지 역사소설을 보면 대부분 역대 무사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사쿠라이 오사무(桜井修)는 ‘사무라이 애찬론자’라고 하고 있다.¹⁸⁾ 이 사무라이 정신 즉, 의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무사도(武士道)정신’¹⁹⁾을 일본인의 정신으로 보고 본 작품에서도 이런 정신이 승계된 일본군에 의해 유럽의 대강국인 러시아를 격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시바는 또 다시 ‘여담’으로 등장하면서 역대무사들의 활약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⑦ 여담이지만, 러시아의 과거 육전사(陸戰史)를 봐나가면 어떻게 해서든 적에 대해 2배 이상의 병력과 화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공격에 나가지 않는다는 원래의 원칙 같은 것이 있었던 생각이 든다. 이것은 민족성에 의한 것인가.(중략)

에도시대의 사민(士民)을 감동시켰던 군담은 모두 다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대군을 막아냈거나 아니면 과괴했다는 기술적인 명장담이고 이것에 의해 미나모토 요시쓰네(源義經)가 사랑받고 구스노기 마사시게(楠木正成)에 대해서는 신비적인 경외심을 품었다. (중략)

그 행위의 목적이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렬한 미(美)에 있기 때문에 에도 태평의 서민마음을 울렸던 것이리라. 이 정신은 쇼와기까지 이어진다.

(五, 黄色い煙突, p.16~17)

위의 인용문은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접전을 앞두고 전함의 숫자라든가 전투력이 러시아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해전을 벌여야만 했던 일본인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적은 인원으로 싸움에 임했던 역대 무사들의 무용담이야기이다. 즉,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작자는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인의 민족성을 모든 것을 갖추고 전쟁에 임했던 러시아인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 실제 인물인 중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1185~1333)와 남북조시대((1336~1392)에 활약했던 미나모토 요시쓰네와 구스노기 마사시게의 군담(軍談)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뛰어난 지략을 서술하고 있다.

요시쓰네는 중세를 연 요리토모(源頼朝)의 이복동생으로 시바는 『요시쓰네

18) 桜井修 外, 「明治という国家、平成という国家」, PRESIDENT, 1996. 12, p.74

19) 무사도(武士道)란 사전적 의미로는 ‘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일본에서는 10세기 무렵부터 사회계층으로서 무사가 나타났다. 무사도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1575년 전국시대 말기 무렵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정서(掟書)에는 ‘무사의 집안에 태어나면 칼을 들고 죽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항상 무사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죽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은 무(武)를 위해 썩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義経』(1966)라는 작품에서도 오로지 자신이 살아야 할 가치와 무사라는 본능 때문에 인생을 보낸 그의 인간성을 그리고 있다. 더구나 요시쓰네는 중세초기의 작품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도 다뤄졌던 인물로, 시바는 그의 번뜻이는 천재성과 전쟁에서의 신들린 듯한 능력과 면밀한 연구와 합리성, 그리고 결단력을 최고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²⁰⁾

마사시게는 가마쿠라말기부터 남북조시대에 활약한 무사로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황국(皇国)사관’아래 전사할 것을 각오하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군신의 거울’, ‘일본인의 거울’이라는 칭송을 얻어 일본 수신교육에 발탁되기도 하였다.²¹⁾ 시바는 이런 인물들의 정신이 당시 사람들에게로 스며들어 고유한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국민의 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시바의 논리에 대해 그의 역사관이 애국사관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고 있다고 하여 ‘국수주의자’로 평가되고도 있다.²²⁾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이러한 능력은 학습되어 완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는 편협하다고 할 수 있다.

⑧ 여담이지만, 후에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군의 고급 참모장교의 대부분이 메켈의 문하생으로 메켈의 재임은 메이지20년 전반의 불과 수년간이었으나 그 문하생들은 그 가르침을 잘 지켰다. 후에 이 사실이 극단적으로 ‘러일전쟁의 작전상 승리는 메켈 전술학의 승리이다’라고 말해졌을 정도이다.

(一, 海軍兵学校, p.192)

메이지초기의 일본은 처음으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였다. 육군은 영국식으로 해군은 독일식으로 하기 위해 이들 나라에서 교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하였다. 이 문장은 요시후루가 육군학교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사네유키도 해군병학교에서 독일식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앞서 인용한 문장에도 등장했던 메켈에게서 배운 장교들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야기이다. 당시 메켈은 일본 내에서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근대육군의 전술사상을 일변시켜 천재로 일컬어졌던 독일인 몰트케(Moltke, Helmuth von; 1800~1891)의 제자로 이런 실력자가 초빙된 대학에서 군사학을 배운 일본군들이

20) 志村有弘 編, 『司馬遼太郎 事典』, 勉誠出版, 2007年, p.218

21) 平泉澄, 『楠公・その忠烈と余香』, 鹿島出版会, 1973年.

22) 「시바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시바사관의 창시자로 자리잡아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문화일보』, 1997년 2월 21일자), 「시바는 일본인의 혼과 일본인의 자부심을 일깨워 준 일본주의자,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폄하한 일본우월주의자」(김용범, 『일본주의자의 꿈』, 푸른역사, 1999년, p.40)

러일전쟁에서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바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의 기본정신은 역대로부터 승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은 문명국에 의해 학습되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담’의 문체는 20여회 더 등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용문만 보더라도 후일담이나 주변의 평판을 인용할 때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①의 문장에서는 전체이야기에 대한 작자의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②~⑤에서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작자의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런 기법은 ⑥~⑧로 이어지면서 옛 무사들에게서 전승되어진 일본정신과 새로 받아들인 문명의 혜택으로 학습된 능력이 잘 융화된 일본인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필자’로 등장

시바는 전술한대로 역사소설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등장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부연설명하는 독자에게 향한 서비스정신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 안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는 주로 ‘여담’이라는 말로 작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필자’로서 직접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의 서술은 ‘여담’의 예와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① 이 글은 전투묘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흥국가시대의 일본인의 어떤 종류의 능력이나 정신상태에 대해서 두서없이 생각해 가는 것이 이른바 주제라면 주제라 할 수 있다. (중략) 필자는 이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을 때 알았다. (四, 黒溝台, 488)

시바는 러일전쟁의 막바지 전투장면을 서술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단장의 일화를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는 ‘군신’으로 추앙될 만큼 부하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여기에서 작자는 소설을 써나가면서 이런 숨겨진 일본인의 능력을 발췌하여 서술해가는 것이 작품의 주제라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 전술했듯이 본 작품 1권에서는 러일전쟁 속의 한 형제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던 시바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테마로 실감 있는 전투장면과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면밀하게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를 비로서 알았다고 자신을 지칭하며 회고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필자의 등장은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듯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바로 후일담이나 주변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아래문장을 보면 더욱 확연해질 수 있다.

② 시험 삼아 필자도 당시의 신문들을 펼쳐본다.

‘러시아 대군, 동아(東亞)로 향하다.’ 1901년 1월 11일자 『시사신보(時事新報)』 ‘드디어 닥치려고 하는 일대 위협. 러시아의 만주 점령은 동아의 평화를 교란한다.’ 1월 22일자 『만조보(萬報朝)』

‘러청 밀약 문제에 대학교수 등 분기. 이토 내각의 약체외교를 통렬히 비판하다.’ 1월 24일자 『보지신문(報知新聞)』 (二, 列強, p.204)

위의 인용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당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접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신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3국간섭 아래 국제적 고립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러시아와 영국과의 타협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결국에는 영일동맹(1902)의 성립으로 러시아와는 대립관계가 되었다. 이 신문기사는 러시아의 부동항확보를 위한 남하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기의 상황을 적고 있다. 시바는 본 작품에서 이를 막고자 일본이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제 기사를 인용하여 현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라는 문체는 당시 상황을 더욱 생동감있게 묘사하기 위해 작자가 직접 찾아다니는 모습도 서술하고 있다.

③ 필자는 이 원고를 쓰는 것에 대해 올 봄(1971년) 히로시마현(広島) 구레시(呉市)에 살고 있는 가와이(河合)씨를 만나 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모처럼 승낙을 얻었을 때는 당일 감기에 걸려 가지 못하고 산케이신문의 가계야마 이사오(影山勲)씨를 대신 보냈다. (五, 鎮海湾, p.175)

④ 이 원고를 쓰는데 있어서 필자는 오키나와현(沖縄県) 미야코 니시쵸(宮古西城)중학교교장 마쓰바라 세이키치(松原清吉)씨에게 물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六, 宮古島, p.185)

이런 문장들은 마치 기자가 사건을 취재한 후 그 경위를 쓴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시바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적인 증거들로 인해 소설이 완성되고 있음을 ‘필자’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며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즉, 러일전쟁 당시 참전했던 인물을 만나 취재를 하려고 했다가,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처음으로 발견한 미야코섬(宮古島)주민이었던 한 사람에게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술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증거들로 인해 소설이지만 역사서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저널리스트한 기술방법은 기존의 소설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이고 작품의 2/3가 전쟁이야기이므로 마치 군기물(軍記物)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시바는 이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⑤ 이 대요새의 공격에 대해서 일본 측의 태도를 필자는 시간의 경과를 때로는 전후로 한다거나 때로는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반복하여 서술한다거나 하며 집요하게 쓰고 있다. 동시에 그 집요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三, 旅順, p.334)

⑥ 이 원고에 앞서서 전투묘사는 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필자로서 봉천회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스케치하고 싶다. 우선 병사의 수첩.
(五, 會戰, p.291)

시바는 중반부에서 전투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가 그 집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집요함이란 일본 측의 입장에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전투장면을 사실에 가깝게 재연하기 위하여 시바는 일본의 참모본부가 편찬한 『메이지37,8년 러일전사(明治卅七八年日露戰史)』(1912~15) 전10권의 부록에 있는 정밀한 지도와 러시아 측의 기록을 대조해가며 기술했다고 밝히고 있다.²³⁾ 그러나 계속하여 묘사되는 전투장면에 대해 그 아래 문장에서 다시한번 자신의 등장으로 각인시켜주며 격렬했던 당시 상황을 한 병사의 수첩을 인용하여 좀 더 기술하겠다는 의도를 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현장감있게 표현하는 문체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 때문인지 시바작품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건·사고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설이지만 좋은 역사서로서 일본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필자의 등장은 이런 사실적인 표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국가관을 드러내고 있다.

⑦ 필자는 태평양전쟁의 개전으로 향한 일본 정치적 지도층의 어리석음을 조금치도 용서하고 싶은 맘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도쿄재판에서 인도대표의 판사인 필씨가 말한 것처럼, 미국인이 그렇게까지 일본을 죄어들어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무기 없는 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났을 거라는 말은 역사에 대한 깊은 영지와 통찰력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략)

러일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인 제국주의시대의 한 현상인 것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 현상 안에서 일본 측의 입장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자가

23) 본 텍스트 6권의 「あとがき」, p.467

있는 힘껏 짜내려고 했던 방위전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二, 開戦へ, p.357~360)

이 인용문은 일본의 1937년 중일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진 태평양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바는 당시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였던 도쿄재판²⁴⁾에서 인도재판관의 말을 빌려 일본국을 옹호하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그 판사의 말에는 역사에 대한 깊은 영지와 통찰력이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고 있다. 나아가 이어지는 문장과 같이 러일전쟁을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벌였던 방위전이라고 단정 짓기에 이른다. 시바가 내셔널리즘작가라고 비춰진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의 피해자인 국가로서 이런 식의 발언은 국수주의자로 폄하되기 쉬우나 시바는 어설픈 서양의 제국주의 흉내를 내었던 일본국을 비하하고 있는 문장도 서술하고 있다.

⑧ 서양이 번영했던 그 에너지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일본의 국권론자는 그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있다고 보았다. (중략) 일본의 그것은 이제 막 개업한 상태로 매우 어색하고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서 추악한 결과를 보였다. 유럽열강 중에는 제국주의의 후진국인 독일이 충분히 그러했다.

말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이 당시의 일본이나 그 주변상태와 상황을 설명해야할까? 필자는 이래저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一, 日清戦争, p.329)

작품에서 시바는 메이지초기 서양의 흉내를 낸 일본을 국제적인 평판으로 ‘원숭이’라고 했던 것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때 일본은 서양식 법과 국회를 만들고 독일식 육군과 영국식 해군을 만들었다. 일본의 이런 유럽흉내를 보고 중국과 조선은 경멸하고 있었다고도 쓰고 있다. 당시 서양강국들은 식민지를 갖고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위의 문장은 이제 막 근대화가 된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서양흉내를 내려했지만 제국주의의 후진국인 독일과 같은 행동만을 답습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악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러일전쟁 후의 계속된 전쟁을 가리킨다. 러일전쟁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정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 야망에 가득 찬 일부 군부의 잘못된 만행으로 결국에는 패전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기 이후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24) 정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며 극동군사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였던 재판으로 ‘도쿄재판’이라고도 한다. 이 재판소는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에 의하여 W.F.웹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인도·네덜란드·필리핀·뉴질랜드에서 각 1명)과 J.B.키난(미국)을 수석검찰관(首席檢察官)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다.

펼치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바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어가야할지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국에 대한 비판도 내면에는 그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사상에서 발로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자’의 등장은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실증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적인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의 문장에서는 세밀한 자료 분석으로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②~⑥에서는 당시의 신문기사나 작자의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진실된 것임을 주지시킴으로서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⑦~⑧에서는 시바자신의 생각을 삽입시킴으로서 그의 국가관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3. 기타 등장기법

지금까지 작자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서술하는 ‘여담’이라든가 ‘필자’라는 문체로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작자가 등장하는 기법은 본 작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이 이야기(この物語)’라든가 전술한 ‘필자’의 예문과 같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이 원고(この稿)’라는 문체로 계속되고 있다.

① 청일전쟁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이 이야기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밖에 없다. 그 조금의 필요성 때문에 말한다면 선도 악도 아닌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장단계 문제로 이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一, 日清戦争, p.326)

② 일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국교단절을 통고한 것은 1904년 2월 6일이었다.

러시아의 선전포고는 9일이고 일본은 10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전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전후(前後)한다. 러일양국의 전략을 서술해 두어야 한다.

(三, 砲火, p.7)

시바의 문체적 특징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소설의 내용을 의미하는 ‘이 이야기’로 쓰고 있는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들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한 시바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앞서 시바는 청일전쟁을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의 말을 빌려 천황제인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최초의 식민지 획득전쟁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①의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신흥국가 일본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생긴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②의 인용문 또한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할 때의 시간적 추이를 서술하면서 이 기점을 중심으로 양국의 전략 즉, 양국이 전쟁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두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문체 또한 작자의 애국사관이 잘 드러나 보이는 내용이다. 청일·러일전쟁을 놓고 자국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는 그는 아래의 문장과 같이 제차 역대 무사의 능력으로 돌아가 일본인의 사고성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막대한 정보조직력으로 이야기를 돌리며 자신의 생각을 삽입시키고 있다.

③ 가가(加賀)의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는 만년, 옛 상전이었던 노부나가를 회고하면서 ‘후사미인(總見院, 노부나가의 법명)님은 늘 남의 땅으로 밟고 들어가서 싸움을 하셨다.’고 예찬했지만 노부나가의 진격사상이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四, 黒溝台, p.446)

④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기능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정보조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각국의 정세를 정력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그 국민적 능력을 갖고 분석하고 있었다.

(六, 退却, p.62-63)

③의 마에다 도시이에에는 전국시대(戰國時代, 1493~1573)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섬겼던 장수이다. 시바는 도시이에의 눈을 통해 노부나가의 군사담을 예로 들면서 전술했던 옛 일본인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노부나가의 정신을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다시 본래의 러일전쟁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다. ④문장의 당시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내용에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영일동맹으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였던 이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또한 옛 장수의 능력이라든가 당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애국주의적인 역사관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바의 생각은 『언덕위의 구름』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 각권마다 후기를 첨부하며 더욱 확실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메이지는 일본인 안에 능력주의가 부활한 시대였다.’(三, あとがき, p.405)라고 하는 메이지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작품의 제목처럼 언덕위의 구름을 향하여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근대화를 이루어나갔던 시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바는 메이지기를 앞서 서술했듯이 유럽의 제국주의를 모방한 시대이며 과거의 흑설탕을 백설탕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대라고 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이 시기는 메이지유신 이후 급작스런 근대화로 그 이

면에는 과중한 세금이라던가 소작쟁의 등 어두운 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이지를 좋게 보고 있다고 본 작품의 후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²⁶⁾ 또한 소설의 주제가 일본인의 능력이라고 했듯이 위와 같이 이 능력주의가 발휘된 시대가 바로 메이지기라는 것도 추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소설의 주내용이 전쟁이야기이므로 일본군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옛 무사들의 고유한 정신이 승계된 사상과 잘 학습된 일본군의 능력을 말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주인공인 아키야마형제와 같은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을 작품에서는 계속하여 서로 비교하며 아래의 문장과 같이 흑백논리를 펼치고 있다.

⑤ 유능과 무능이라는 이 문제를 이 원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어렵듯 하게 잡담으로 할 작정이었다. 여순(旅順)공격에 있어서 노기군(乃木軍)의 작전수뇌부가 제1군 이하에 비교해서 놀랄 만큼 무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잡담으로 쓸 마음이었다. (三, 旅順, p.300)

⑥ 이 원고에서 동경의 대본영에 있는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의 인기 영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러나 나가오카의 이런 점은 여순의 일본인들을 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성격인 것으로, ‘지혜’라든가 ‘재치’가 갖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노기군의 참모장인 이지치 고노스케(伊地知幸介)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성격과는 정반대였다. (三, 旅順, p.324)

쇼와시대의 군부지도층들은 대부분 러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작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시바는 일본역사에서 거의 신격화되고 있는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1849~1912)를 『순사(殉死)』(1967)라는 작품에서도 강한 비평을 가했지만 본 작품에서도 시종일관 우매한 인물로 치부하고 그 이하 메이지기 번벌출신의 노기장군이 이끄는 군사령부의 무능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⑤의 인용문을 보면 군부들의 무능을 잡담으로 가볍게 쓰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시바는 러일전쟁 후 전쟁을 계속하여 이끌고 간 군부관료에 대하여 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을 정도로²⁷⁾ 쇼와기의 군부에 대해서는 그 무능함을 노골

25) 「明治は模倣の時代であると同時に、さきに秋山の独創のくだりで申しましたように、過去の黒砂糖を精製して白砂糖にするという営みをおこなった時代でもありました。」

(司馬遼太郎, 『明治という国家[下]』, 日本放送出版協会, 1994年, p.66)

26) 본 텍스트 1권의「あとがき」, p.447

27) 시바는 『明治という国家』에서도 「軍人は死ぬための機能なんです。同時に味方による破壊音—詩的な表現としてですが—もきました。国家をたたきこわしている音でした。そのハンマーをもって駆けまわっているのは、国家が大がかりな試験をもって採用した高官たち—軍人・文官をとわず—でした。」이라고 하고 있다.

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다음 ⑥의 문장을 보면 이런 시바의 생각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 원고’라는 말로 본 작품을 지칭하며 구체적인 인물을 예로 들며 서로를 비교하고 있다. 이곳에 등장하는 나가오카 가이시는 요시후루와 같이 육군대학출신으로 역시 노기군 휘하의 이지치 고노스케를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전술과 같이 시바는 이런 무능력자들이 쇼와시대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패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전개되는 시바의 역사관은 흑과 백이 분명한 2항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작자가 등장하는 기타 방법으로서 ‘이 이야기’와 ‘이 원고’라는 문체는 ‘여담’이나 ‘필자’로 등장하는 기법과는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①~④의 ‘이 이야기’의 문장은 본래의 내용을 가리키며 적당히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하며 결국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⑥의 ‘이 원고’의 기법은 전술한 ‘필자’의 ③④⑥번 인용문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작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5. 맺음말

시바료타로는 초기의 시대소설을 거쳐 사료를 중시하는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 기술방법으로 소설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역사의 격동기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인물중심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석을 가미한 독자적인 기술방법으로 인해 그의 고유한 역사관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언덕위의 구름』의 작자등장기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즉, 작자가 얼굴을 내미는 ‘여담’의 문체는 후일담이나 주변의 평판 등과 함께 역대무사들의 능력을 인용하며 주인공의 능력과 더불어 일본인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작자자신을 지칭하는 ‘필자’의 기법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작자의 국가관이 내재되어있는 문장에도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담’은 이야기 시점이 아니라 이후의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필자’는 당시 상황에 그 시점을

맞추며 전승되었지만 학습된 일본인의 능력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며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방법으로서 작품의 내용을 말하는 ‘이 이야기’는 본래의 내용에 작자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삽입시키며 이야기의 흐름을 적당하게 정리해놓고 있다. 작품을 지칭하는 ‘이 원고’의 등장은 ‘필자’의 문체와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이 또한 사실적인 표현에 주력하면서 근본적으로 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각 권마다 첨가하고 있는 후기를 통해서도 소설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중, 메이지기가 소설의 배경인 만큼 특히 이 시기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듯 시바의 독창적인 역사기술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을 보면 모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바의 역사관으로 집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작자등장기법은 주로 메이지기 일본인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방법은 역대 격동기 속의 일본과 일본인의 능력을 보기 위한 사용법으로 이야기의 시점에서 또는 이후의 시점 등 여러 각도에서 이들을 그리려고 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현관이 아닌 한 형제의 능력을 주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등장하면서, 시대의 역사는 영웅에 가려져 있는 이와 같은 주변인물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시바의 생각은 곧 그의 역사관으로 비추어져서 현재까지 시바작품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김용범(1999) 『일본주의자의 꿈』, 푸른역사, p.40
青木彰(2005)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戊辰・日露・太平洋, 朝日新聞社. p.124
司馬遼太郎(2005) 『坂の上の雲 [一]~[六]』, 文芸春秋(新装版)
司馬遼太郎(1968) 『国盗り物語』, (株)新潮社, p.20
司馬遼太郎(1994) 『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6~8
司馬遼太郎(1994) 『明治という国家[下]』, 日本放送出版協会, p.66
司馬遼太郎(1979) 『歴史と小説』, 集英社文庫. p.278
司馬遼太郎(1964) 『竜馬がゆく(風雲篇)』, 文芸春秋, p.8
志村有弘 編(2007), 『司馬遼太郎 事典』, 勉誠出版, p.218
成田龍一(2003) 『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 朝日新聞社. p.8
野沢 敬(1990) 『「現代日本」朝日人物事典』, 朝日新聞社, p.796
松本健一(1996) 『司馬遼太郎』, 小沢書店. p.27
松本健一(2005) 『司馬遼太郎を読む』, (株)めるくまーる. p.12~13, p.50~52
金景鎬(2002) 「시마료타로(司馬遼太郎)의 역사관(司馬史觀)의 형성배경과 의미 考察」,
日語日文学研究 第41輯.
桜井修 外(1996.12) 「明治という国家、平成という国家」, PRESIDENT, p.74
半藤一利 外(1996.12) 「司馬遼太郎が坂の上の雲で書きたかったこと」, PRESIDENT, p.69
鷺田小弥太(2004.10) 「サピオ(Sapio)」-「司馬史觀が独り歩きを始めている」, 小学館. p.21

要 旨

司馬遼太郎は初期の時代小説を経て史料を重視する歴史小説を書きながら自分の独特な記述方法によって小説を完成している。特に司馬は『坂の上の雲』のように激動の時代を主に背景にしている。その理由は鳥瞰的な視線で、歴史の緊迫した時代に生きていた人間の能力を見るのが小説の目的だと言ったからである。さらに司馬は実際の人物と事件を根拠にして歴史小説を書いていた。彼は小説を書くために徹底的に資料を集め、歴史的な事実の調査を行った。このなかで感動を受けたものを「余談」や「筆者」などで、自分を作中に登場させながら記述している。また、いろいろな新聞記事や人々の証言などの具体的な証拠に基づき、その時代の様子を生き生きと表現している。その上で作者固有の歴史観が成り立っただろうと思ひ、本研究では作者登場技法を中心に司馬の歴史観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すなわち、「余談」の文体は、主人公の能力とともに旧時代の武士らの能力を合わせて日本人の能力を表現している。さらに自分の思考を具体化させるために「筆者」として登場させ、実証的な資料を提示しながら作者の国家観を見せている。その他の文体では作品の本質を述べているし、司馬の思考を補足している。

このような司馬の独特な記述方法によって、彼の思考がそのまま小説に反映され、彼の歴史観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歴史観が人々によって、さまざまに議論されてきたのである。

司馬は、作品の冒頭でこのような人間の能力を顕官の中から選ばなかったと言っている。それは、時代のヒーローではなく、彼らの後ろで自分の任務を誠実に行う秋山兄弟のような人々によって、歴史は作られ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これを証明するために司馬は毎回自分をいろいろな形で登場させ、具体化した事実的な証拠を提示しながら主張してい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独特な記述方法、作者登場技法、歴史観、人間の能力、余談、筆者

투 고 : 2009. 2. 28
1차 심사 : 2009. 3. 14
2차 심사 : 2009. 3. 28